

# 바다무지개

2016년 2월호

## 2015년 기쁘고 슬픈 베트남 기업들의 두 가지 기록

- 2015년 베트남 기업들은 기쁘고 슬픈 기록이 있음. 내용에 따르면, 발전지향의 기업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실시 및 신뢰 생성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마주해야 할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 2015년 신설 기업수 관련 다시 한 번 기록을 세움. 2015년 기획투자부 산하 사업등록관리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설 기업수는 94,700 개사로 집계됨.
- 사업등록관리국 Bui Anh Tuan 부국장은 해당 기록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표현함.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세우지 못한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5년 신규 등록 기업의 급증이며, 이렇게 강한 파장은 몇 십년만이다”라고 이야기함.
-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업법과 투자법 발효일인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신규 등록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했음.(7월 6,900개사, 8월 9,300개사, 9월 7,000개사, 10월 9,200개사, 11월 9,300개사, 12월 7,900개사) 그리고, 2015년 신규 등록 자본은 601.52조동으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지만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신규 등록금액(601.52조 VND)과 함께 증자금액이 851.02조동을 달성한 것이라고 Bui Anh Tuan 부국장은 이야기함.
- 2015년 총 등록금액은(신규, 증자) 1,452.5조동이며, 2015년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134,570개의 증자변경(3분의 1 이상이 법정자본금 증자)을 신청함.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1% 증가한 수치임.
- Bui Anh Tuan 부국장에 따르면 신설 기업 및 증자기업의 증가는 2014년 기업법과 투자법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함.
- 중앙경제관리연구원 Nguyen Dinh Cung 원장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두 법률의 개방은 지난 기간 동안 사업급증을 일으킨 요소라고 평가함. 사업자등록증명서에 사업 분야 미가입, 법적으로 규정 및 허가된 사업 범위 내, 자유권 규정 등 기업들에게 많은 이점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신규기업등록 발급까지의 소요 기간은 2,9일, 등록 변경은 2,47일로 2014년 기업법 발효 이전 보다 2일 감소됨. 이밖에, 조건부투자 이외 기업들은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사업 분야 내에서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시장을 떠나버린 기업

- 2015년 기록을 이야기하면 사업 중단 및 해산 기업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9,500개의 기업이 해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함.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한 기업은 71,400개사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함.
- 이렇듯, 2015년 해산 및 사업 중단한 기업의 수는 80,900개사로 전년 보다 높음.(2014년 67,800개사, 2013년 70,500개사, 2012년 63,500개사, 2011년 61,500개사)
- Nguyen Bich Lam 통계총국장은 기업들의 해산 및 사업 중단은 시장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논평함.
- 점점 심해져가는 경쟁에서 사업이 효율성이 없고, 해산하는 것은 평범한 일임. 만약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베트남 기업의 해산 및 중단 수는 상당히 낮다고 Nguyen Bich Lam 통계총국장은 이야기함. 다른 시각으로는 신규기업 설립 수 증가뿐만 아니라 해산 기업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다고 Pham Chi Lan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함.
- 이에, Pham Chi Lan 전문가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항상 위험에 둘러 싸여있으므로 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함.
- 실제로, 지난 시간 동안 자본, 토지, 기술로 부터 기업들이 혜택을 받음에 있어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시장 복귀 기업의 수는 회복 증상을 보이지 않는 반면 시장을 떠나는 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국내 기업군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기업들이 발전하기 어렵게 만들. 만약 국내 생산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경제 통합이라는 배경에서 경쟁하기에 상당히 힘들 것임. 외국기업들은 베트남에 투자 시, 저렴한 노동력, 시장 잠재력과 같은 이점만이 아닌 국내 기업 부문의 발전까지 관심을 가짐.
- 이에, Pham Chi Lan 경제전문가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발전과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2015년은 기업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을 실시했어야 하는 한 해였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

[출처: 베트남 상공 신문 6 Jan, 2016]

## 소매업 부문의 M&A 돌풍

- 2015년 베트남 현지 소매업체와 외국 소매업체들 간의 극심한 경쟁 가운데, 소매업 부문이 인수 합병(M&A) 돌풍을 맞았음.
- 2015년 초, 독일의 Metro AG는 베트남 내 Metro Cash&Carry 도매 체인을 태국의 Berli Jucker Public Company Limited(BJC)에 매각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 도매 체인은 8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음.
- 이 사건은 베트남의 유통 부문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Metro가 현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임.
- 베트남의 소매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보이면서, Metro 시장에 대한 외국의 관심은 Metro AG의 Cash&Carry 사업이 BJC에게 수익성 있는 거래가 될 것임을 사실 상 보장해 주었음.
- Metro 그룹은 그 후 호치민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 전역에 넓은 유통망을 보유한 푸드 서비스 유통업체를 매입하였음을 발표함으로써, Cash&Carry 사업을 매각한 후 베트남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시켰음.
- 반면, 프랑스의 Casino 그룹은 그룹의 해외 사업 개편 계획의 일부로 베트남 내의 BicC 슈퍼마켓 체인을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음.

- BicC는 베트남에서 17년 동안 운영되며, 32개의 슈퍼마켓과 10개의 편의점을 보유하고 베트남 소매 산업 내의 가장 크고 가장 성공한 업체들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BicC의 매각은 최대 7억 5천만 유로(8억 1300만 달러)에 거래될 수도 있다고 함.
- Casino 그룹은 지금까지 BicC 베트남 매각 의사만 밝혔을 뿐, 다른 어떠한 세부 계획이나 양도 가격은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또 다른 사례로는, 베트남 시장에 들어선 이후부터 계속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존재를 알리고 있는 일본 대기업인 Aeon이 있음. Aeon은 2014년 1월 호치민 시에 베트남 내 첫 번째 쇼핑몰(Aeon Celadon)을 개설한 이후, 같은 년도에 두 번째 매장(Aeon Canary Binh Duong)을 개설했음. 두 달 전, Aeon은 하노이에 세 번째 매장(Aeon Long Bien)도 개설했는데, 해당 매장의 매니저인 Tadahiko Ishikawa는 Aeon이 호치민 시와 하노이를 중심으로 2020년 까지 20개의 매장을 개설하려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전했다.
- Aeon은 지금까지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내 두 번째로 큰 소매업 센터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세 매장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음.
- 현지 소매업체들과 협력하며 현지 수요에 대해 그들이 보유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Aeon은 베트남 현지 소매업체인 Fivimart의 30퍼센트 지분을 매입했으며 Citimart의 지분은 49퍼센트나 매입했음. 이렇게 Aeon은 더 큰 공급 체계를 설립하여 현지 업체들이 정보 및 기술, 물류, 직원 교육, 품질 관리에 있어 새로운 방식들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있음.
- “베트남은 활발한 경제 속에서 젊은층 중심의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의 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베트남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매업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Ishikawa는 전했다.

- 그리고 “소매업 시장은 아직 경쟁이 그다지 치열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음.
- 소매업계의 또 다른 외국 강자 업체는 한국의 대기업인 Lotte 그룹인데, 롯데는 소매 시장에서 수많은 인수 합병(M&A)을 시행해 왔음. 롯데는 현재 베트남 내에 10개의 슈퍼마켓과 무역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수를 2020년까지 60개로 늘릴 계획임.
- 그 밖에도 베트남의 소매업 시장에 발걸음을 뗀 기업으로는 Robinson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태국의 Central 그룹과 미국의 7-Eleven, 프랑스의 Auchan과 한국의 대표 유통업체인 Emart가 있음.
- 베트남 소매업체 연합의 회장인 Dinh Thi My Loan에 따르면, Metro나 BicC와 같이 베트남 내 자산을 처분한 외국 기업들에게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소매업 시장은 여전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며, 따라서 무궁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함.
- “BicC와 Metro는 베트남 내 첫 번째 외국 투자 기업들 중 하나였으므로, 그들의 시장 철수는 꽤 많은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연합은 그들의 그러한 시장 철수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Loan은 말했음. 그녀는 그 회사들의 철수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다른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64 January 4-10, 201



## FDI 유치는 2016년 베트남 경제 성장의 동력

-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수출, GDP 성장, 자본에 많은 기여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이에, 사회-경제 발전방향에 있어 기획투자부 Bui Quang Vinh 장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 발전에 동력이며 사회 안정을 위함이다. 이에, 우리는 FDI 유치 증진을 위한 해결책들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 신규사업 유치 성공

- 외국인투자국 Do Nhat Hoang 국장은 2015년은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으며, 전년 동기대비 신규 및 증자사업의 증가는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야기함.
- FDI 유치 관련 삼성 디스플레이 30억불 증자, 투자금액 24억불의 Duyen Hai 2 발전소, 부동산경영 분야의 총 투자자본 12억불의 De Vuong시 합작사업 등과 같이 몇몇 사업의 두드러진 성장이 있었음.
- “FDI기업군은 수출, GDP성장, 자본 관련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Do Nhat Hoang 국장이 강조함.
- 외국인투자국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의 신규사업은 2,013건, 전체 등록자본금 155.78억불로 전년도의 99,6% 유치함. 증자사업은 814건, 71.8억불이며 이는 전년 대비 56,6% 증가함. 2015년 신규 및 증자 사업의 총금액은 227억불로 2014년 대비 12,5% 증가함.

- 외국인투자자들은 19개 분야에 투자했으며 그 중, 제조, 가공 분야가 신규사업 955건, 증자사업 517건(신규, 증자 152.3억불)이며 이는 전체 FDI 등록자본금액의 66,9% 비중을 차지함.
-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는 총 62개 국가이며 이 중, 한국은 신규사업 702건, 증자사업 260건으로 전체 투자 등록금액은 67.2억불로 베트남 전체 투자금액의 29,6%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베트남 투자 1위국을 달성함. 이어서, 말레이시아(24.7억불, 10,9% 비중), 일본(18.4억불, 8,1% 비중), 대만(13.9억불, 6,1% 비중) 순임.
- 마찬가지로, 2015년 FDI기업군(원유 포함)의 수출활동을 보면 1,151억불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함. 이는 전제 수출금액의 70,9% 비중을 차지함.
- 현재 FDI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근로자 수만 보았을 최대 약 300만 명이 고용됨. 이는 경제 전체 자본에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FDI군은 Binh Duong(빈즈엉), Ho Chi Minh(호치민), Bac Ninh(박닌) 과 같이 몇몇 성의 GDP에 많은 기여를 함.
- 위와 같은 수치가 말해주듯이, 베트남은 FDI 실행금액 및 신규사업 유치에 있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냄. 이 점은, 베트남 투자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임. **베트남 경제의 내적 잠재력 증가**
- 베트남은 현재 다국적 그룹 및 중소기업들의 투자 목적지가 되기 위한 유리한 기회들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베트남은 55개 국가와의 깊은 경제통합으로 관세품목 90% 이상이 철폐됨. 이는 베트남에 투자를 위한 투자자들에게 큰 이점으로 보여짐. 이러한 요소들로 베트남은 외국인투자자들의 목적지로 간주되고 있음.



- 여러 경제 전문가들도 FDI는 베트남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을 인정함. “삼성의 Thai Nguyen(타이응우웬)성, Bac Ninh(박닌)성의 2개 사업만으로도 북부 지방성의 성장 동기부여를 만들었다.”라고 FDI기업협회 Nguyen Mai 회장은 강조함.
- 기획투자부 Bui Quang Vinh 장관은 FDI는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구성이라고 강조함. “Thai Nguyen(타이응우웬) 삼성과 같이 1개 사업이 2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FDI 유치는 수백만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으며 사회 안정 및 경제 성장을 위해 우리는 FDI기업을 계속해서 지지해야만 한다.”
- Bui Quang Vinh 장관에 따르면 베트남은 질이 높고 베트남 기업들을 성장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함.
- 외국인투자국 Do Nhat Hoang 국장은 2016년 효과적인 FDI 유치를 위해 향후 기업 소득세, 수출입세, 토지세를 중심으로 기업들을 위한 지속적인 우대정책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베트남 경제를 위한 내부 잠재력 증가와 실제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전, 관리업무 향상, 생산 가치 사슬 향상이 추세가 될 것임.
- 이밖에, 기획투자부는 나라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FDI기업 베트남 투자를 지지할 것임. 특히, 두 FDI기업과 국내기업을 연결하기 위한 점진적인 국내 기업 개발은 기술이전을 지향한 고부가제품 생산을 목적으로함.

[출처: 베트남 투자 온라인 11 Jan, 2016]





##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 기록

- Toyota(도요타), Thaco(타코) 및 Mercedes(메르세데스) 모두 두드러진 자동차 판매 성공의 해를 보냈으며 심지어 메이커 차량은 2014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함.
- 자동차제조협회(VAM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전체 판매수는 244,914대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함. 그 중, 승용차 145,392대, 상용차 89,327대, 특수목적차량 12,195대로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연간 판매 200,000대를 초과함.
- 상기 3가지 차종 모두 전년 보다 각각 승용차 44%, 상용차 74%, 특수목적차량 1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2015년 초부터 기업들은 과거보다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렇게 까지 많이 성장하리라고 생각한 기업들은 많지 않음.
- 상위권을 보면, 도요타와 타코간의 격렬한 경쟁에서 도요타는 브랜드 이점으로 51,246대를 판매함. 그 중, 도요타 50,285대 Lexus(렉서스) 961대로 2014년 동기대비 24,4% 증가함.
- 경쟁자 타코의 성장이 멈추지 않음. 만약 타코가 2014년도에 KIA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면 2015년은 Mazda(마쯔다)에 초점을 맞춤. 그리고 이밖에, Peugeot(푸조) 개발에 집중함. 2015년 타코는 80,412대 판매로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했으며 베트남에서 판매수가 가장 많은 기업임.

- 만약 기아, 마쯔다, 푸조의 승용차만 별도로 계산하면 42,231대 판매로 작년보다 100% 증가함.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도요타의 7,000대 보다 적으나 지금과 같이 3개 브랜드 차량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향후 1~2년 내 승용차 부분에 있어 도요타를 넘을 수 있을 것임.
- 각각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기아는 판매인기 차량인 모닝, K3, Rio 제품과 함께 100% 성장함. 특히, Rio는 전년 동기대비 500% 증가함. 마쯔다는 마쯔다3, CX-5 및 BT-50 과 같은 에이스 차량과 함께 116% 증가함. 프랑스 브랜드인 푸조는 544대를 판매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함.
- 기록은 일본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브랜드 또한 성장 기록을 달성함. 포드 베트남은 2015년 20,740대 판매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이는 베트남 진출 이후 가장 많은 판매수량임. Transit, Ranger, EcoSport가 주력제품으로 수익에 큰 부분을 기여함.
- 자동차업 전문가에 따르면, 모든 브랜드가 동등하게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자동차 수요와 관념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특정 브랜드만을 위한 명확한 이점은 없다고 이야기함.
- 자동차 구매 고객들의 평균연령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젊은층의 취향 또한 역동, 기술, 새로운 자동차를 선호하며,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충족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해당 브랜드는 이득을 볼 것임.
- 경제성장으로 제품의 다양화, 안정적인 구매 이자율은 자동차 시장의 뜨거운 성장의 한해를 이끈 요소들임. 고객들의 대다수의 수요가 값싼 경차이며, 이러한 수요를 점유하기위해서 각 기업들은 기아모닝, 현대 Grand i10, 도요타 Vios, 혼다 City 처럼 A, B세그먼트 자동차에 집중함.

- 이밖에, 픽업차량의 다용도, 수수료 및 비용우대로 해당 차종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냄. 2015년 VAMA의 속한 6개 픽업차량(Chevrolet Colorado, Mitsubishi Triton, Toyota Hilux, Ford Ranger, Mazda BT-50 và Isuzu D-Max)의 총 판매수는 16,670대임. 반면 2014년에는 9,599대를 판매함. 즉 73,7% 증가함. Ford Ranger가 동 차종에서 8,685대로 1등이며 2등은 Mazda BT-50으로 4,328대임.
-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고가 차량 또한 산뜻한 결과로 마감함. 메르세데스는 3,600대 판매로 2014년 대비 50% 증가했으며 이는 베트남 20년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임. C-class 차량은 1,500대 판매로 256% 성장속도를 나타냈으며 이밖에, E-class, S-class도 성장함.
- 렉서스는 신형차량인 NX200t, Lexus LX, New ES와 함께 하노이 두 번째 쇼룸을 오픈했으며 961대 판매로 많이 증가함. 이는 작년보다 약 600대 더 많이 판매함. 이밖에 고급 브랜드인 Porsche, BMW, Audi, Land Rover도 모두 증가함.
- 수입세 변동, 특별소비세 조정, 각종 세금 및 비용 변경으로 2016년은 가격변동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량 변동의 해가 될 것임. 빠른 정책 변화들은 자동차 판매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침.
- 이에, 각 자동차 수입 업체들은 정부에 특별소비세 변경 시행령의 발효 일을 늦추는 것과 새로운 특별소비세 계산법에 대하여 건의함.
- 몇몇 다른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에 우려를 나타냄. 베트남 교통은 발전하지 못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다른 사회경제 문제를 끌어들이 자동차 제한을 목적으로 세금이나 기타비용을 적용 또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

[출처: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 16 Jan, 2016]

2016. 01. 29(금)

스리랑카 정부와 약2년6개월 동안 밀당을 해서 드디어 면세로 차량구입하고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정식번호판은 2주 있어야 부착 가능하네요. 이제부터 정식운영 가능합니다.





# 보도자료

[2016.01.07]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02-784-6831

## 이자스민의원, 이민·다문화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이민사회기본법안’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6일 ‘이민사회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를 통합하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이민·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사회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부처가 흩어져 있다 보니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며 “이민정책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큰 틀에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상시기구인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졌으며, 이자스민, 김광림, 손인춘, 양창영, 윤명희, 이병석, 이에리사, 조명철, 주영순, 진영, 최봉홍,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의원 14인(人)이 법안 발의에 함께 했다.



# 보도자료

[2016. 1. 21. 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인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양: 02-784-6831

**이자스민 의원, 이민 현장의 목소리 담은**

**<대한민국 이민정책 초읽기> 책자 발간**

**-이주민을 비롯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계 전문가 13인의 생생한 경험담 실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외국 인력의 활용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대표의원)은 실제 이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면서 종합적인 이민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이민에 대한 이해와 향후 이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각 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한민국 이민정책 초읽기>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초고령화 추세 속에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으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이민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 책자는 이민정책 수립의 전제로써 실제 한국으로 이주해 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13인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발간되었다. 그 밖에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이민정책 해외사례 그리고 이민정책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이민컨트롤타워 설치 근거를 담은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안도 담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현재의 외국인 정책은 단순히 체류 지원이나 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마저도 14개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이민정책컨트롤 타워 설치를 통해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이민정책 수립추진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한 책자가 이민정책을 논의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오랜 시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을 고민한 결과다. 이제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자유’와 ‘상생’의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때문에 이 책을 정독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이민정책 초읽기’는 비매품으로 저작권 및 판권이 국회다문화사회포럼 대표의원 이자스민에게 있습니다.

끝.

## 겨울방학 특강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실시중입니다.

겨울방학 기간중에도 한국어 공부를 원하는 외국인력분들을 위해 한국어 기초와 TOPIK 한국어능력시험 특강반을 개설하였습니다.

기 간 : 2016.01.03(일) ~ 2016.01.24(일)

장 소 : 101 / 102호

내 용 : 한국어 기초반 / TOPIK 반

강 사 : 안영옥, 김명숙 / 김정희

대 상 : 겨울방학 특강에 신청한 교육회원

## 제 20회 무료이미용 서비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20회 경남 봉사미회분들과 함께

하는 외국인력분들을 위한 무료 이미용 봉사 서비스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외국인력분들을 위해 센터를 방문 하셔서 이미용 서비스를 준비해주시고 정성스레 외국인력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멋쟁이로 만들어주신 경남봉사미회분들로 인해 센터의 따뜻한 정과 행복이 가득해졌습니다.

일 시 : 2016.01.10(일)  
08:40 ~ 12:40

장 소 : 센터 다목적 홀  
봉사단체 : 경남 봉사미회  
참여인원 : 인도네시아 외국인근로자 배드로 외 19명

## 제43회 TOPIK 합격증 수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43회 TOPIK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TOPIK 시험 합격증 수여식을 실시했습니다.

센터에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바쁜 와중에도

놓치지 않고 TOPIK 시험일정에 맞추어 시험에 접수하고

응시하여주신 외국인력분들의 열정에 다시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합격증을 수여하신 분들을 축하드리며 다음 시험에서는 더욱 향상된 실력으로 더 높은 TOPIK의 단계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일 시 : 2016년 1월 10일 11:30~

장 소 : 상담실

대 상 : TOPIK 시험 합격자베트남 NGUEYN VAN HAU외 42명



# 마산의료원 무료진료

2016.1.17 오후 2~4시

마산의료원에서 사랑의 무료  
진료를 하는 날입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감기에 걸린  
근로자와 과도한 업무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 귀국환송서비스 (파키스탄)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성공적인 한국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금의환향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귀국 환송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들었던 한국의 사업장을 뒤로하고 남아있는 본국의 동료들과 포옹을 하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그동안의 노력과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 시 : 2016. 01.21.

장 소 : 함안군 군북면 HM금속

대 상 : 파키스탄 근로자 AFZAL, AHMED

지원자 : 운영팀 과장 김인수, 교육문화팀 대리 최준혁



## 귀국환송서비스 (베트남)

창원 외국인력지원센터는  
2016.01.27.(목) 체류기간 만료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베트남근로  
자 3명에 대하여



귀국환송서비스를 실  
시하였습니다.

4년10개월 동안 열심히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뒤 떠나는  
모습이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별한국어 시험 후  
재입국 후 다시 만나  
기를 기약하며 베트남  
으로 출국하였습니다.



# 301네트워크 공동업무협약식

2016.1.20 오전 11시부터 마산의료원과 4개 지역센터의 301 네트워크 공동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납부액 37000원 미만자는 무료 100만원까지(수술시 3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불법 근로자는 전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6년 상반기 개강식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기념하는 2016년 개강식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강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마산대학교 김덕훈 교수님의 건강 특강도 함께 실시하여, 교육과  
건강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 시 : 2016. 01. 31(일) 13:00~15:00

장 소 : 다목적 홀

대 상 : 외국인근로자 100명

내 용 : 2016년 전반기 개강식

강사, 자원봉사자 위촉장 수여

건강특강



# 2016년 상반기 개강식



## 제 5회 한류음식체험마당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5회 한류음식체험마당

설 명절 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한국의 최대 명절인 설이 무엇인지, 명절의 의미와 뜻을 기념하며, 한국 고유의 음식은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새로운 한 해의 행복을 기원하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 시 : 2016.01.31(일) 11:30~12:30

장 소 : 다목적 홀, 주차장

대 상 : EPS 외국인근로자 100명

내 용 : 설 명절 맞이 떡국 나눔



## CFC 우수상담사례

### 제목 : 외국국적동포 일반취업교육 신청

중국 상담통역원 : 소유채

#### ○상담개요

- 중국근로자 임홍란씨는 2015년12월말에 중개회사를 통해 H-2비자 일반취업교육을 신청했음. 교육 일정은 1월11일부터 1월13일까지임. 1월10일(일)에 근로자가 센터에 연락하여 1월11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 못 해서 신청 취소하고 싶고 1월25일부터 1월27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에 재신청해 달라고 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의 접수 내역이 확인하려면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기위해 중개회사에 연락함. 로그인 한 후에 확인한 결과 접수 현황은 배정완료로 되어 있고 취소할 수 없는 상황임.1월10일은 일요일이라서 공단에 문의할 수 없음.
- 1월11일 오전에 부산산업인력공단에 문의했음.(051-330-1841) 교육일 하루 전에 근로자가 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이 요청을 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접수 취소 제한 날이 라서 취소 신청을 못 함. 11일 오전에 바로 공단에 연락했지만 교육당일이어서 취소는 가능하지만 교육비는 환불 받을 수 없다고 함.
- 1월11일부터 1월13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서 1월14일 오전에 다시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신규 교육신청하면 됨.
- 1월14일 오전에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부산교육장에서 1월25일부터 1월27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을 신청해줌. H-2 외국인 취업교육 접수증(납입영수증)출력하여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교육 준비물등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자세히 안내함.

##### 2. 상담포인트

- 근로자가 취소 요청한 날은 교육일 하루 전이어지만 1월10일은 일요일이라서 취소 불가능 함.
- 근로자가 1월11일부터 1월13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에 접수하고 배정 받았지만 교육에 참여 하지 못 해서 다시 신청할 때 재신청이 아니라 신규 신청을 하면 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국적동포(H-2)취업교육 신청을 2015년 12월 1일부터 전면 인터넷으로만 접수시행한다.
- 교육일 연기 신청하려면 반드시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접수 취소하려면 교육일 하루 전 취소 가능.(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할 때 교육비를 가상계좌입금 하는 경우에는 환불 받을 때 반드시 본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방문해야 신청 가능.

## 인도네시아 공공행정, 전자정부 지원사업

글·사진: 배지은 (인도네시아사무소 ODA 청년인턴)

IT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430만 명에 이르고, 대통령이 나서서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의지를 언급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의 제 7대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신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 추진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에서는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행정개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니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힘쓰고 있다.

### 인니 최고의 명문, 반둥공과대학(ITB)과 손잡다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서부 자바의 도시, 반둥(Bandung)에 위치한 명문 국립대 '반둥공과대학'은 모든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입학할 열망하는 곳으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2011년 시작한 "인도네시아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반둥공과대학과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반둥공과대학에 보안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센터가 자리한 자티낭고르(Jatinangor) 캠퍼스는 빈 캠퍼스나 다름없었다. 센터 건립 이후 코이카와 반둥공대는 기자재 제공 사이버보안 분야 석사과정 개설, 캠퍼스 간 통학용 버스 기증, 학내 매점 구축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쳐 센터 활성화에 공헌하였다.

특히, 센터 앞에 마련된 매점은 인니 사무소의 '반둥시 길거리 아동 및 어머니 자립역량강화사업'의 수혜자였던 길거리 아동과 가족을 고용하여 이들의 건전한 소득원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반둥공대 공로상(Ganesa Wirya Jasa Adiutama)을 수상하기도 했다.(14.7.3)

또한, 지난 8월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사이버보안 분야는 협력국이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와 추진 중인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보안 긴급대응 및 국가인증체계 구축 사업'에 반동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컨설턴트로 투입하는 등 후속사업 연계 노력을 통해 반동공대와의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고,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인니 IC 교육센터, 인니 유일 IT교육 전담센터로 자리매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1시간 여 떨어진 찌카랑(Cikarang)에 '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Korea-Indonesia ICT Training Center)가 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기존 사업('07-'09/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마련된 이 센터를 'IT 행정역량강화사업'의 대상지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이 대학 내 센터 건립과 석사과정 개설을 통해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힘썼다면, 이 사업은 인니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을 통해 정부 효율성 제고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갔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IT 관련 공무원은 약 430만 명에 이른다. 최근 센터는 인니 국가공공행정원(LAN)으로부터 IT 교육센터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내 유일한 IT 교육전담센터로 법적 지위를 확보한 놀라운 성과다. 교육 수료 시 발급되는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고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매년 센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은 늘어날 전망이다.

센터 건립 당시 연간 300명 수준이었던 교육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목표인원은 1,500명에 이른다. 이 연수과정에는 인도네시아 공무원뿐만 아니라 30명의 동티모르 공무원도 참여한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IT 기술을 제3국의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남남협력 방식으로 진행되어 더욱 눈길을 끈다.



## IT 인적자원 개발이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정부 내 부정부패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전자정부의 구축이 시급한 상태다. 인니 정부의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코이카에서는 위와 같이 인적자원 개발에 방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반동공대로부터 받은 개발협력 분야의 공로상이나, 인니 국가공공행정원(LAN)의 교육센터 인증만큼 고무되는 성과가 현장에서 만나는 인도네시아 부처 고위급·실무 공무원의 인식 변화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 리스 수치아티(Lis Suciaty) 장관 보좌관은 최근 이루어진 사업 워크숍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정부 추진은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또한 이처럼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인도네시아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 인도네시아에서 새해 즐기는 방법

글·사진 : 류영은(인도네시아사무소 ODA 청년인턴)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한국에서는 보신각 종소리를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 정동진에서 새해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 사실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곳으로 어디가 인기 있는지 둘러보자.

### 도심에서 즐기는 새해 - 자카르타 모나스(MONAS) 광장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시내에서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은 바로 모나스 국립 기념탑 (MONAS, Monumen Nasional) 광장이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기념탑 주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즐기고 폭죽놀이를 하며 축제 분위기를 낸다.

음악과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카르타 나이트 페스티벌 (Jakarta Night Festival)에 참가할 수 있다. 이 행사는 매년 12월 31일 자카르타 관광문화청 (The Jakarta Tourism and Culture Agency) 주도로 인도네시아 호텔 인도네시아 광장 및 주변에서 열리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부임 이후부터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작년에는 잘란 탐린 (Jalan Thamrin)과 잘란 수디르만 (Jalan Sudirman) 주변 12개의 무대에서 100명이 넘는 가수들이 공연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올해는 지하철 (MRT, Mass Rapid Transit)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로 조용하게 보냈다고 한다.

##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해 - 안쭈 유원지(Ancol)

자카르타 시민들이 모나스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러 가는 곳은 자카르타 북부 안쭈(Ancol) 해변 주변이다. 안쭈(Ancol) 항구 주변에는 안쭈 드림랜드(Ancol Dreamland)라고 불리는 유원지가 있어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워터 파크, 볼링장까지 함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안쭈 해변을 따라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연말 연초에는 예약이 힘들다고 한다. 안쭈 유원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불꽃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용하게 보내는 새해 - 뿔라우 스리부(Pulau Seribu)

천 개의 섬이라는 뜻의 뿔라우 스리부는 자카르타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해외 여행객들보다는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여행지로 유명하다. 뿔라우 스리부는 실제로 천 개가 아니라, 자카르타 북부 해안 주변 120여 개 섬을 통칭하여 뿔라우 스리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가까운 섬은 안쭈(Ancol) 항구에서 배로 30분이면 갈 수 있고, 먼 곳은 3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그중에 대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휴양지로 갈 수 있는 섬은 40여 곳이 있다. 대부분 크기가 크지 않은 섬이기 때문에 섬 주변을 산책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섬마다 리조트 혹은 홈스테이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스노쿨링이나 바나나보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저녁에 바다로 나가 보트 위에서 보는 석양은 빨라우 스리부를 찾았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비경이다. 빨라우 스리부는 조용한 새해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 휴양지에서의 새해 - 발리 꾸타(Kuta) 해변



멋진 해변과 휴양지로 유명하며,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는 발리에서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특히, 발리 꾸타 지역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여행지이며, 휴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꾸타 해변에서 서핑과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바다를 보며 마사지를 추천한다.

12월 마지막 날에는 꾸타 해변을 따라 끊이지 않는 폭죽놀이를 볼 수 있다고 하니, 휴양과 축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즐겁고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며, 슬라맛 따훈 바루 (Selamat Tahun Baru,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CFC 2월 행사 안내

- 첫째주**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09:30 ~ 17:00)-통영고용센터
- 둘째주** ▶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서비스(15:00~18:00)-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진주 사랑의집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09:30 ~ 17:00)-진주고용센터  
▶ 제 68회 스리랑카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인제대학교
- 셋째주**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09:30 ~ 17:00)-통영고용센터  
▶ 제 21회 이미용서비스 실시(09:00~)  
▶ LG세이커스 농구동아리 농구관람(14:00)-창원운동장  
▶ 외국인력(거점)지원센터 통합 워크숍-해운대 한화리조트
- 넷째주** ▶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서비스(15:00~18:00)-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진주 사랑의집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09:30 ~ 17:00)-진주고용센터  
▶ 마산의료원 무료의료진료(14:00~16:00)-상담실  
▶ 베트남 커뮤니티(15:00~16:00)-다목적홀  
▶ (주)건화 사업장 안전교육(11:00~14:00)
- 다섯째주** ▶ 외국인 자율방범대활동(19:00~21:00)-통영시 안정공단

## CFC와 함께해요😊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mailto: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http://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70-4481-6703  
 070-4481-6702  
 070-4481-6701



070-4481-6704  
 070-4481-6705  
 070-4481-6706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 후원 계좌 >

경남은행 513-07-1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